국립공원 청렴콘텐츠 공모전 응모작

[포토웹툰]

청렴위기종




퇴근시간, 순찰을 마치고 하산하던 길에...


혹시... 김동출??
똥출이!!!



대학선배와 마주쳤다.







대학다닐 때도
참 잘 챙겨주던
선배였는데



밥이나 술은 물론, 국립공원 면접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.





그런 선배였기에...

의심할 수 없었다.


셔틀


....?


선배?





아니, 의심해선 안 된다.



고향 떠나며
취업턱 한 번
못 쐈는데



뭘 해주진 못할 망정,
의심하는 행동따위는 못하겠다.



이대로 넘어가면 나는 편해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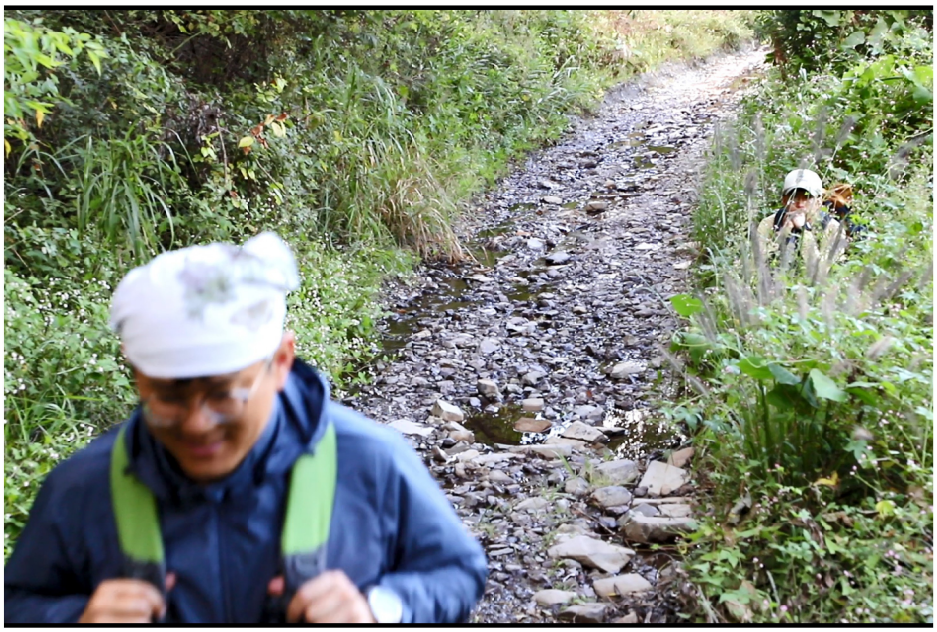


내가 쓰레기
주워가며 지킨
이곳은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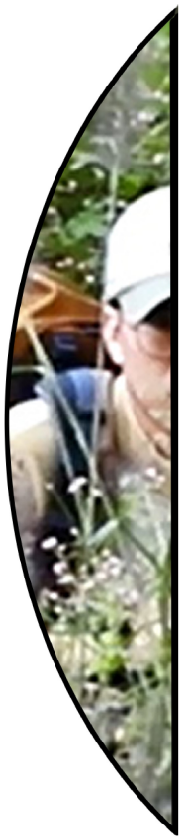


편하지 않을 것이다...!!





통제 시간은 이미 넘었다.
곧 일몰인데 어딜 가는 거지?







※석곡: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. 멸종위기종 2급이며
자연산의 경우 수백만 원에 암거래된다.




슥!!


쉬익!!!!


척
선배,
멈춰주세요!!!


너...
너 이 자식! 감히 뒤를 밟아..?!


정말
죄송해요.
하지만 선배,
이러면 안 됩니다.


이 꽃은 멸종위기종이에요!!


그래서...
신고라도 하겠단 거냐?

그건 차라리 쉽죠!
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,



선배도 잃지 않고!
국립공원 직원으로서..



그러니,


꺾지 말아주세요!!!


하....


썩을 놈...


언제
밥이나 먹자.

내가 살게.





그날 깨달은 게 있다면,



내 직업은 무슨 광활한
자연을 지키는 게 아니라,



꽃 한송이 정도의 양심을
지키는 일이란 점이다.



위기종도 선배도
지켜낸 게 아닐까...?

〈청렴위기종 끝〉



무등산생태탐방원

국립공원공단 MUDEUNGSAN NATIONAL PARK NATURE CENTER